이마트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할인전'

이마트가 '미리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1일까지 '베이직 트리' 3종과 장식용 LED 전구류를 동시 구매 시 20% 할인가에 판매한다. 크리스마스 벽 장식용품은 행사 카드 구매 시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 2~8일 크리스마스 인형, 스노우볼, LED 전구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삼성,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3종 공개…전장사업 가속도

"주행 중에도 고용량 콘텐츠 초고속 다운"

5G통신칩, 초당 5.1Gb 속도 지원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도 공개
가상비서 등 첨단사양 안정적 구동
전력관리칩, 차량 전력 효율적 운용

삼성전자가 11월 30일 5G 기반 통신칩 '엑시노스 오토 T5123', 인포테인먼트(IVI)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 전력관리칩(PMIC) 'S2VPS01' 등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3종을 공개하며 자동차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픽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삼성전자는 11월 30일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3종을 공개했다. 5G 기반 통신칩 '엑시노스 오토 T5123', 인포테인먼트(IVI)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 전력관리칩(PMIC) 'S2VPS01'이다. 최근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초고속 통신칩과 고성능 프로세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첨단 차량용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전략이다.

●업계 최초 5G 차량용 통신칩

삼성전자는 먼저 차량에서도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을 선보였다. 엑시노스 오토 T5123는 차량용 통신칩으로는 업계 최초로 5G 통신을 지원한다. 초당 최대 5.1Gb(기가비트)의 초고속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주행 중에도 끊김없이 고용량·고화질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최신 5G 기술 기반 멀티모드 통신칩을 내장해, 5G망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단독(SA)모드'와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NSA)모드'를 모두 지원한다.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엑시노스 오토 T5123에는 Arm사의 '코어텍스-A55' 코어 2개와 'GNSS'(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위성항법시스템)를 내장해 텔레매틱스 시스템 개발을 더 용이하게 했다.

또 차량이 5G 모뎀을 통해 송수신 되는 빠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 인터페이스인 'PCI 익스프레스'와 저전력 고성능 모바일 D램 'LPDDR4X'를 지원한다.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폭스바겐 탑재

IVI용 프로세서도 공개했다. 엑시노스 오토 V7은 LG전자의 VS(전장)사업본부에서 제작한 폭스바겐 'ICAS 3.1'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됐다. 인공지능(AI) 연산을 위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해 가상 비서 서비스, 음성, 얼굴, 동작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또 선명한 화면을 위한 불량화소 및 왜곡 보정 기술, 이미지 압축기술(DRC)을 내장했으며, HiFi4 오디오 프로세서 3개를 통해 최상의 음질로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기능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최대 32GB(기가바이트) 용량과 초당 68.3GB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LPDDR4X 메모리를 지원한다. 또 최대 1.5GHz(기가헤르츠)속도로 구동되는 Arm사의 '코어텍스-A76' 코어 8개, 'Mali-G76' 그래픽 처리장치(GPU) 코어 11개로 구성돼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카메라는 최대 12개까지 지원한다.

특히, GPU는 2개의 그룹으로 분리돼 디지털 계기판, 중앙 정보 처리 장치(CID),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등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삼성전자는 차량에 탑재되는 전자 부품이 늘면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전력반도체도 선보였다. 전력 반도체는 차량 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S2VPS01은 IVI용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S2VPS01은 자동차 생산업체(OEM)와 주요 파트너사들이 필수사항으로 꼽는 조건 중 하나인 '에이실(ASIL)-B' 인증을 획득했다. 에이실은 차량용 시스템 안전 기준으로 사고의 발생가능성, 심각도, 운전자의 제어 가능성을 바탕으로 4개의 레벨(A, B, C, D)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IVI 시스템은 B레벨 수준을 요구한다. 이 밖에도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사용환경에서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압·전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보호 기능, 발열 차단기능, 자가 진단 기능도 탑재됐다.

박재홍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커스텀 SOC 사업팀장(부사장)은 "최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의 지능화 및 연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최신 5G통신 기술, 진화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프로세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검증된 전력관리칩을 제공해 전장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내년 1월 16일까지 운영하는 '넘버5X아이스링크'.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명품 브랜드 샤넬과 맞손 럭셔리한 '넘버5×아이스링크장' 온다

샤넬 향수 N°5 100주년 기념…친환경 소재 사용 눈길

롯데백화점이 1일 명품 브랜드 샤넬과 손잡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야외광장에 '넘버5X아이스링크'를 오픈한다.

내년 1월 16일까지 운영하며, 연말 시즌과 샤넬의 대표적인 향수 N°5(넘버5) 100주년을 맞아 기획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비뉴엘 포함)과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당일 이용 가능한 아이스링크 입장권과 스케이트 대여권 각 2매를 선착순 증정한다.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대별 1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12월 주말은 대부분 마감됐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올겨울 최고의 인증샷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넘버5의 다양한 홀리데이 한정판 제품과 함께 넘버5 홀리데이 콘셉트의 조형물, 포토부스, 스크린, 미디어 월 등을 설치했다. 인증샷 촬영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시그니엘 숙박권 등을 증정한다.

환경을 생각한 '착한 아이스링크장'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물을 얼린 얼음이 아닌 친환경 소재의 인공 아이스패널을 사용해 재활용은 물론, 온도와 상관없이 유지가 가능하다. 이에 얼음 생성에 필요한 물과 얼음이 녹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냉방시설의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김시환 롯데백화점 화장품 팀장은 "전 세계에서 단독으로 선보이는 이벤트를 위해 샤넬과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롯데백화점과 함께 로맨틱한 연말을 보내며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금호타이어 문정주 전략팀 책임 한국에너지대상 장관 표창 수상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 문정주 전략혁신팀 책임(사진 왼쪽)이 26일 열린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효율향상 관련 시책 및 홍보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문 책임은 금호타이어가 에너지효율분야 정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과 관련 법 준수, 고효율 제품 개발·공급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2011년부터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를 도입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타이어의 회전저항, 젖은 노면 제동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고품질·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금호타이어 측은 "수상을 계기로 제도 활성화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우아함의 정수"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 공개

3년 만에 선보인 완전 변경 모델
세단·롱휠베이스 두 가지 출시예정
역동적 주행·럭셔리한 외관 매력

제네시스 G90(위쪽)는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과 더 얇아진 두 줄 램프로 우아함을 더했다. 세단 대비 긴 전장으로 여유로운 내부 공간을 확보한 G90 롱휠베이스 모델. 사진제공 | 제네시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G90(지 나인티)가 3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새롭게 태어났다.

제네시스는 11월 30일 G90 완전 변경 모델의 외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고 다음 달 중순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G90는 세단과 전장을 더 늘린 롱휠베이스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며 차량의 상세 사양은 계약 시작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형 G90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반영해 대형 럭셔리 세단에서 기대하는 우아함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과 날렵한 두 줄 램프를 적용해 정체성을 강화했고, 측면부는 우아함을 더해주는 파라볼릭(포물선) 라인을 적용했으며, 후면부는 얇고 긴 두 줄의 리어램프를 통해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완성했다.

새롭게 디자인된 크레스트 그릴은 두 층의 지-매트릭스 패턴을 엇갈리게 입체적으로 쌓아 올린 '레이어드 아키텍쳐(Layered Architecture)'를 적용해 고급감을 한 층 더 높였다.

아울러 후드와 펜더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 패널 사이의 이음새를 최소화해 시각적 간결함을 완성한 '클램쉘(Clamshell) 후드'와 두께를 80% 가까이 줄여 돌출부가 줄어든 '기요셰(Guilloché) 패턴(명품 시계에서 볼 수 있는 기계로 정밀하게 새긴 반복되는 장식 문양) 엠블럼'으로 최고급 럭셔리 세단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G90 롱휠베이스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세단 대비 긴 전장을 바탕으로 뒷좌석 도어와 C필러를 확장해 더욱 여유로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롱휠베이스 전용 20인치 휠을 적용했다. 또한 창문을 감싸고 있는 포물선 형태의 라인(DLO)과 B필러에 크롬 소재를 적용하고 전용 전·후 범퍼를 통해 세단 모델과 차별화했다.

이상엽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담당 전무는 "제네시스 G90는 역동적인 주행과 우아한 여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심한 균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동행복권-KISA,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MOU
"건전한 복권 문화·불법 행위 방지 적극 대응"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이 25일 송파구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로또, 파워볼 등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및 도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KISA의 도박스팸 데이터, 동행복권의 불법 로또·파워볼 등 복권 관련 사이트 정보 공유 ▲불법 복권 관련 사이트 차단 및 분석 ▲불법 사이버도박·도박스팸 관련 홍보·마케팅 활동 등 불법 도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9월 KISA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 중 도박스팸이 43%(약 194만 건)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박스팸은 불법도박 유도 등 사회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는 "KISA와의 업무협약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며 "동행복권은 앞으로도 건전한 복권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복권 사칭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